



[산업] 최태원 SK그룹 회장 하노이포럼 참석 사회적가치 전파 05



Economy

|             |                |           |                      |
|-------------|----------------|-----------|----------------------|
| 코스피         | 2086.09 (0.00) | 코스닥       | 687.29 (0.00)        |
| 금리 (연고채 3년) | 1.96 (-0.01)   | 환율 (원/달러) | 1128.30 (+11.00)(9일) |

### 9·13부동산대책 두달... 싸늘해진 서울 주택시장

# 없어서 못사던 매물, 급매물 전략

서울 아파트값 14개월만에 상승세 멈추고 보합 전환 1억 이상 하락 매물도 나와 매수 대기자 관망세 유지

“급매물 나왔는데요...”

9·13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주택거래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출 규제를 조이자 매수 의지가 꺾이면서 가격 상승세가 멈추고 호가가 떨어졌다. '없어서 못사던' 매물들은 급매물로 전략했다. 그럼에도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에서 호가가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로 작용하는 강남에서도 호가가 주저앉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경우 17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 9월 최고 거래가(18억5000만원)와 비교하면 1억5000만원 내린 가격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27억원 선에서 호가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같은 평형이 최고 3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박순선 서울 시장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상승 효과를 누렸던 마포도 열기가 꺾였다.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조이는 정부의 전방위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완전히 식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더 떨어지길 기다리며 꿈쩍도 안 하는 실정이다. 사진은 11일 오후 급매 정보가 붙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지난 9월 최고 15억원까지 거래가 됐다. 현재는 같은 타입이 13억8000만원에 호가하고 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만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이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막는 한편,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9·13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지난해 9월 둘째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상승 효과를 누렸던 마포도 열기가 꺾였다.

(강남·송파·잠실)도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 주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지난 5일 4.0을 기록했다. 9·13 대책 시행 전인 8월 27일 65.7까지 올랐다가 두 달여 만에 61.7포인트 급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도 지난 5일 67.2까지 내려갔다. 지난 9월 3일 171.6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후 두 달 만에 104.4포인트 꺼졌다. '거래 절벽' 수준이다. 좀처럼 매매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달 들어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매물 소식

|                  |   |
|------------------|---|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5평 매매안내입니다. 518동5층.19억/배란다확장 구울수리. 남향. 정상입주    |
|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6단지 45평 급매가 나와서요. 607동12층이구요. 입주되고 18억에서 조정됩니다. |

9·13 대책 이후 매수자들이 관망세에 접어들자, 서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급매물을 알리고 있다.

을 종종 알려왔다. 심지어 방문하지 않고 전화 문의만 남긴 곳에서도 꾸준히 문자로 매물 소식을 전해왔다.

부동산114서성권 책임연구원은 "9·13 대책 발표 이후 과열양상이 진정되면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매도호기도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수요자들은 주택 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분양시장과 올해 연말 발표되는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당분간 거래 없는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社告

## 메트로미디어 '제3회 뉴테크포럼'

### 차원 다른 연결시대 5G가 열어 갈 세상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본격 개막합니다. 12월부터는 5G 방식의 전파도 쏘게 됩니다. 5G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모든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변화합니다. 이전보다 월등하게 빨라진 속도와 엄청난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G는 일상생활 속으로도 들어옵니다.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초정밀 위치추위시스템, 자율자동차 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산업별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네트워크로봇 등 5G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입니다. 군사적으로도 5G는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을 통해 인공지능(AI)의 시대의 도래를 미리 살펴본 메트로미디어는 이제 5G의 세계를 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5G가 열어갈 세상은 어떤지, 이를 위한 기술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적으로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5G 시대를 메트로미디어 독자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미디어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5G, 차원 다른 연결의 시대 개막
-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09:00~11:50
- 장 소 :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메트로미디어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ICT총연합회
- 참가비 : 현장등록 5만원 (사전등록시 무료)
- 참가신청 : 제3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전화 (02)721-9800, 이메일: forum@metroseoul.co.kr

metro

### 삼성전자 '폴더블폰' 출시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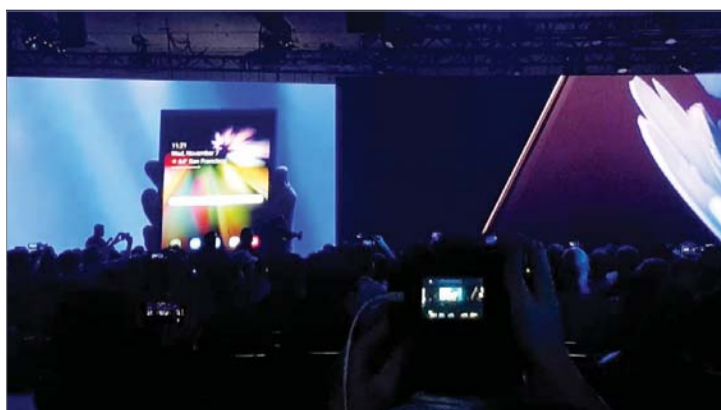
# 핵심부품 공급 삼성디스플레이·SDI 수혜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접었다 펼 수 있는 폴더블폰을 공개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가 폴더블 OLED와 배터리를 각각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폴더블폰은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의 스마트폰이다. 커버디스플레이는 4.58인치 OLED, 메인디스플레이는 7.3인치 OLED이다. 커버디스플레이는 화면비가 21대9, 메인디스플레이는 4.2대3이며, 해상도는 420dpi다.

접었을 때에도 화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도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게는 200g으로 아이폰 Xs



삼성전자가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미래를 만나는 곳(W here Now Meets Next)'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에서 내년 출시할 폴더블폰(접었다 펴는 폰)의 디스플레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펼쳤을 때 모습. /연합뉴스

(177g)과 유사하고 힌지(hinge)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접고 펴는 과정을 원활히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IB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가 역성장하면서 생산이 지연된 삼성디스플레이의 A4라인이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

고 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삼성전자의 폴더블 OLED 스마트폰의 상용화로 A4라인이 가동될 전망"이라며 "폴더블 OLED 스마트폰 수요는 2019년 200만대, 2020년 2000만대, 2021년 3500만대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19년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이 초 프리미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지는 모바일 혁신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폴더블 폰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내재화하고 있어 독점적 시장지위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접을 수 있는 폴더블 능동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시장은 올해 20만장 규모로 내년 140만장, 2020년에는 520만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폴더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시장도 동반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공장 가동률 73% 엔진이 식어간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생산능력지수 첫 마이너스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2년 연속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시설 효율은 높아졌지만 투자 부진이 계속되는 탓에 생산이 충분히 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8년의 66.8%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업종별 가동률 지수를 기초로 산정된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 대비 생산량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이래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가동률 지수는 통상 생산량이 늘면 올라간다. 하지만 공장 기계나 설비 등 생산능력이 축소되면 생산이 늘지 않거나 소폭 줄어도 가동률이 개선될 수 있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1~9월)는

1998년 바닥(89.7)을 치고 이듬해 100.8으로 반등한 뒤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15년까지 매년 100을 웃돌았다.

이후 조선업 등 주요 산업 구조 조정이 본격화한 2016년에 100 밑으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상승 반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동률 지수는 주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력산업 성장 둔화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된다.

가동률 하락세를 두고 특히 우려가 큰 이유는 그 원인에 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줄었음에도 생산이 미진한 탓에 가동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9월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시작된 1971년 이후 첫 마이너스이다. 생산능력 부진은 최근 설비투자 침체가 주된 요인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